



해바라기와 에메랄드빛 바다 31일 제주시 함덕 서우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에메랄드빛 함덕해변이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내려다 보며 늦여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4·3 희생자 실질적 피해회복 본격화

정부, 내년 1차년도 보상금 예산 1810억원 확정
 보상금액 등 9월 중 결정... 5년 걸쳐 분할 지급
 첫 보상금 후 4개년도 예산은 차기정부 몫으로

내년에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될 1차년도 보상금이 181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방안을 정부가 강구하도록 한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이로써 4·3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가 2022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이 공식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에 대한 정부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도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마침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당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향후 국회에서 보완입법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정부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 1일 국회로 제출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인당 보상금액,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9월 중 의원발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2022년도 정부예산(안)의 확정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됐다"며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추진과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은 4·3특별법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제주4·3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4·3특별법 보완입법을 통해 위자료 문구도 보상금으로 바로잡을 예정이다.

1만명이 넘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전체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지급액수를 놓고 볼때 매년 2000억 정도씩 5개년에 걸쳐 보상을 해나가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 첫 보상금 지급 이후 나머지 보상금 지급은 차기 정부의 몫이 되는 셈이다.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보상금을 분할 지급하는 대신 차기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서울=부미현기자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원 편성 1일 예산안 국회 제출... 심의 거쳐 최종 확정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425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던 473억원 보다 50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425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항목과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도 예산에는 기본설계비 324억원과 공항 건설업무지원비 2000만원, 감리비 32억원 등이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0일 환경부가

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통보 받은 뒤 아직까지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공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하다.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노선이 세계적으로 운항량이 제일 많은 노선"이라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1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녹색자금 나눔숲·나눔길 조성 '순항' 도, 올해 해오름주간보호센터 등에 체험숲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색자금으로 조성된 나눔숲·나눔길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야외체험 등 다양한 활용도가 매우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기관의 경우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거주공간 내 조성된 숲은 시설 이용자에게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년 '녹색자금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곳곳에 나눔숲을 조성하고, 보행 약자층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에 응모하고 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내에 수목 식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통해 보행 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목재 데크 등을 설치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2억4900만 원을 투입해 제주시 케어하우스와 서귀포시 해오름주간보호센터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한편 6억1700만 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 노고록 무장애길 0.8km를 조성했다.

이에 앞서 2020년에는 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공평요양원에 나눔숲을 조성했고, 8억6200만 원을 투자해 사려니숲길 붉은오름입구 내 무장애 나눔길 1.2km를 조성한 바 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무장애 나눔길과 복지시설 나눔숲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 숲 체험은 물론 나무심기로 탄소흡수원 확충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총 27개소에 68억6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대목기자 bigroad@ihalla.com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추진 도, 취약계층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

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 원, 취약

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철거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인 → 철거업체 방문(전문업체) → 면적 조사 및 철거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78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에 217억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1680동에 66억8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대목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2612
 31일 17시 기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제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주지하수 보전·관리 캠페인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 최근 기후변화, 개발사업과 유입인구 증가, 물을 많이 이용하는 특용작물이나 시설하우스 전환등으로 지하수 함양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지하수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농약과 비료 살포, 가축분뇨 불법배출,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실관리 등 지하수의 수질을 위협하는 잠재 오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지하수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속 쓸 수 있는 무한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지하수를 평평 쓰고 있습니다.
-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에서 지하수는 도민 모두가 소중히 사용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 이제부터라도 지하수 오염원은 줄이고 물은 아껴씁시다.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탄소없는 섬 제주에서 유치하겠습니다.